

# 1점차 살얼음 승부, 김호령 진가는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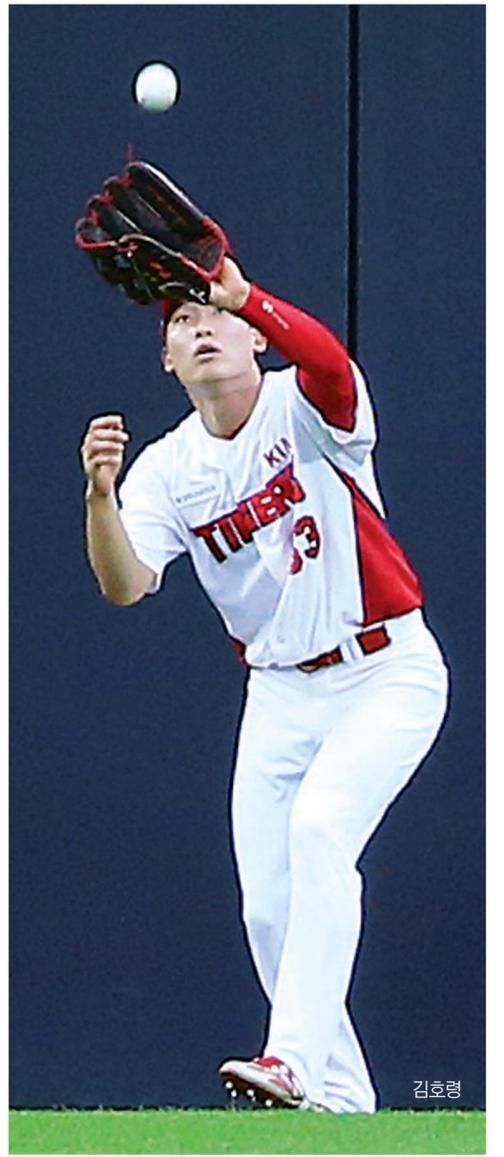
### KIA 중견수 이창진 부상 빈자리 메워 타구 읽는 능력 탁월...호수비로 주말 NC전 역전승 발판 밋 감독 "믿음직한 선수"...세밀한 수비 플레이 호평

김호령의 '쇼타임'이 다시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는 최근 부상 압축을 만났다. 팀의 톱타자 겸 중견수를 맡아준 이창진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다.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던 이창진이 이탈하면서 김호령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승리를 지키는 것이다. 타격 슬럼프 때문에 한발 물러나 있던 김호령은 이창진의 부상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의 빛나는 조연이 됐다. KIA는 이날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7회 1사까지 지옥이었다. NC 선발 라이트의 호투에 묶이면서 단 하나의 안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안타는 물론 사

사구, 실책도 없지 못하고 7개의 탈삼진만 기록했다. KIA 덕아웃에서 "이러다가 (퍼펙트게임 상대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빈틈 없던 라이트를 흔드는 중요한 한 방이 나왔다. 0-2로 뒤진 7회말 1사에서 터커가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7구째 148km 직구를 잡아당겨 우중간을 넘겼다. 퍼펙트와 노히트를 동시에 깨는 홈런이었다. 최형우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나지완과 김민식이 연달아 안타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이어 유민상이 역시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중간으로 공을 보내면서 경기를 3-2로 뒤집었다. 그리고 전상현이 8회 2사 1-2루에서

조기 출격해 실책 없이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지면서 '퍼펙트 위기'를 '극적인 역전승'으로 바꾸었다. 동점포의 터커와 역전 결승타 유민상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이날, 김호령이 빛나는 조연이었다. 최원준이 이날 8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오면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호령이 8회 그라운드 투입됐다. 1점의 승부를 지키기 위한 윌리엄스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다. 8회 볼펜으로 나온 홍상삼이 첫 타자 노진혁을 2루수 땅볼로 잡았지만 모창민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대주자 김성욱이 들어선 뒤 이원재의 타구가 멀리 외야로 뻗어나갔다. 2루타성 타구였지만 베트가 움직이자마자 스타트를 끊은 김호령은 정확히 포구지점으로 내달려 공을 누아채면서 NC의 기를 꺾었다. 이 타구가 빠졌다면 바로 동점까지 가능했던 만큼 KIA의 승리를 지킨 귀한 수비가 됐다. 박수갑채를 받은 멋진 수비였지만 김호령에게는 '보통의 수비'였다.

김호령은 "솔직히 맞는 순간에 스타트를 끊으면서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을 편안하게 하는 수비이기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9일 취재진으로부터 "김호령은 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호령의 수비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통역이 입을 열기도 전에 윌리엄스 감독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웃었다. 이어 "질문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았다"고 이야기한 윌리엄스 감독은 "그런 타구는 베트 나오자마자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확히 파악하고 첫 스타트가 좋았다"며 김호령의 수비를 평가했다.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한 김호령은 9일에는 8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기회를 맞은 김호령이 '김호령표' 수비와 함께 시즌 초반 보여줬던 뜨거운 타격으로 이창진의 부상 공백을 지우고,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탤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김호령

## 브룩스, 프로야구 '별' 사냥

### 다음달 4일까지 올스타 팬 투표 터커·최형우·유민상 등 후보 올라 코로나 여파 올스타전은 취소 경기 기록으로 미스터 올스타 선정

'호랑이 군단'의 에이스 브룩스가 KBO리그 올스타에 도전한다. KBO가 올스타 '베스트 12' 후보를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팬투표를 진행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KBO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0 올스타전이 취소됐지만, 올스타기록 보전과 팬

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베스트 12' 투표를 실시한다. 최종 선정을 받은 올스타 24명은 상금과 트로피를 받는다. 또 올스타 특별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하고 그라운드를 뛰는 영광도 누린다. 나눔 올스타(KIA, 키움, LG, NC, 한화)와 드림 올스타(두산, SK, KT, 삼성, 롯데)로 나눠 투표가 진행되며 팬투표로만 '베스트 12'를 확정한다. 포지션별로 투수는 선발·중간·마무리의 3명으로 구분해 올스타가 선정되며, 외야수 부문은 3명이다.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부문은 각 1명씩이다. KIA에서는 선발 브룩스를 필두로 박준표

(중간투수), 전상현(마무리)이 각각 투수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포수 한승택과 함께 내야에서는 유민상(1루수), 김선빈(2루수), 나주환(3루수), 박찬호(유격수)가 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외야수 후보로는 터커, 나지완, 이창진이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는 지명타자 후보로 키움 서건창, LG 이형종, NC 나성범, 한화 최진행과 대결한다. 투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 26일간 이뤄지며,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신한SOL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 곳에서 1일 1회씩 총 3번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KBO는 투표 기간 중 3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중간집계 현황을 발표한다. 최종 투표 결과는 9월 7일 발표된다. 드림·나눔 양 팀의 최다 득표 선수에게는 상

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다른 22명의 선수들은 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KBO는 팬투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공식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희명병원 건강검진권(2명), 차량용 공기청정기(5명), KBO-비비안 기능성 마스크(30명) 등 선물을 증정한다. 투표 기간 신한SOL 앱에서도 '총 5000만원을 쓴다, ALL STAR 쏘야구 페스티벌'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편 투표가 끝난 뒤에는 '언택트 드림 VS 나눔 올스타 레이스'가 전개된다. 올스타 패치를 부착하고 뛰 경기 기록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미스터 올스타를 선정, '언택트 올스타전'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종료 4분 남기고 골 허용... 또 농친 포항전 첫 승

### 'K리그1 15R' 빛속 혈투 펠리페 선취점 못지키고 종료 직전 1-1 무승부 상대전적 6무 11패

광주FC가 포항스틸야드에서 전개된 '수중 혈투'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남겼다. 광주는 지난 8일 오후 7시 포항스틸러스의 안방에서 2020 K리그1 15라운드 대결을 벌였다. 후반 16분 펠리페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만들었지만 후반 44분 고영준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포항전 '첫승'을 놓쳤다. 광주가 앞선 16분의 맞대결에서 5무 11패를 기록했던 만큼 승리가 간절했던 경기. '첫승'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지만 앞선 인천원정서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까다로운 상대 포항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더했다. 폭우 속에 수중전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광주는 초반부터 포항을 강하게 압박했다. 전반 3분 여름이 띄운 코너킥이 펠리페의 헤더로 연결됐다. 전반 19분에는 한희훈이 골킥 퍼와 마주한 채 시도한 슈팅이 호수비에 막히면서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전반 32분 엄원상이 여름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대를 비켜났다. 이어 박정수의 슈팅도 골대를 맞는 등 전반전 광주가 강하게 포항을 공략했다. 후반 초반 분위기는 포항이 주도했다. 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포항 최영준의 헤더가 골대를 맞는 등 광주 골키퍼 윤병국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후반 16분 페널티지역에서 윌리안이 상대 파울에 넘어졌고, 광주에서는 기쁨의 환성이 나왔다. 이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펠리페가 키커로 나섰다. 펠리페는 왼발로 골대 왼쪽을 가르면서 '0'의 균형을 깼다. 펠리페의 시즌 8호골. 이후 두 팀은 빛속 혈투를 벌이면서 혼신을



광주 펠리페(가운데)가 지난 8일 열린 포항 원정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다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다하는 승부를 펼쳤다. 그리고 후반 44분, 경기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후반 38분 오닐과 교체 투입됐던 포항 고영

준이 일류첸코의 도움 속에 오른발로 광주 골대를 가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광주가 주어진 추가 3분 동안 막판 공세를 벌

였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1-1 무승부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동성고 "청룡기 왕좌 탈환"

### 오늘 오후 2시30분 목동구장서 장충고와 결승전

"2006년의 패배를 갖고 청룡기를 탈환하겠습니다." 광주 동성고가 청룡기 왕좌에 마지막 한 걸음 남겨졌다. 동성고는 지난 8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5회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4강전에서 유신고를 15-9로 제압했다. '2018년 우승팀' 동성고와 '디펜딩 챔피언' 수원 유신고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경기에서 승자가 된 동성고는 10일 오후 2시 30분 청룡기 탈환을 위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된다. 상대는 청주 세광고를 5-4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서울 장충고다. 마지막 승부를 앞둔 동성고 김재덕 감독은 2006년 대통령배 결승을 떠올리면서 '설욕'을 준비하고 있다. 김 감독은 "우승해야 한다. 양현종(KIA)이 나섰던 대통령배 결승에서 장충고에 진 적이 있다. 당시 상대에는 이용찬(두산)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동성고가 우승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성고의 가장 큰 무기는 팀워크다. 3학년들 중심으로 그라운드에서는 물론 덕아웃에서도 화이팅이 넘친다. 김 감독은 "3학년들이 잘 뭉친다. 팀워크와 분위기가 좋다"며 "못 치면 서로 위로도 하고 화이팅이 좋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인상을 쓰거나 하지 않고 하나로 뭉친다"고 이야기했다. 동성고는 유신고와의 4강전에서 김도영의 스피린 등을 앞세워 1회초에만 타자일순하며 대거 8점을 뽑았었다. 하지만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마운드 난조로 3회 9-9 동점도 허용했다. 위기 속 동성고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집중력 있는 승부를 펼쳐, 15-9로 승리를 만들었다. 특히 김기훈(KIA)이 버티고 있던 2018년 우승 현장을 있던 3학년들이 동성고 팀워크의 힘이다.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했던 포수 김시양이 팀의 무게를 잡아 주면서 이번 우승 도전에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김 감독은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댄 김시양이 잘해주고 있다"며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해주고 코치진 조화도 좋다. 선수들끼리 서로 의견 나누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휘 코치를 중심으로 KIA에서 배터리로 한솥밥을 먹었던 김종훈 투수 코치, 김태훈 배터리 코치가 선수들을 잘 아우르면서 결승까지 직진했다. 김 감독은 "비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서울에서 체류시간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편하게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줄었고, 선수들 경기력은 좋아졌다. 좋은 결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